

국 외 연 수 보 고 서

- 연 수 국 : 베트남, 캄보디아
- 연수기간 : 2013. 1. 28. ~ 2. 2. [4박6일]
- 연수인원 : 19명(의원 14명 / 수행직원 5명)
- 연수목적 : 우수문화 비교시찰



중랑구의회

목 차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1
□ 연수목적	2
□ 연 수 국	2
□ 연수기간	2
□ 연수자 명단	2
□ 연수경과보고	3
□ 연수일정	4

제2장. 방문국 현황

□ 베트남·캄보디아 개요	5
□ 베트남·캄보디아 지도	8
□ 우리나라와의 관계	9

제3장. 연수내용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11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17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22

제5장. 발전을 위한 제안

24

국 외 연 수 보 고 서

제1장 국외연수 개요

□ 연수배경

- 아열대 중심의 기후와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여건 아래 형성된 베트남,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을 통해 그들의 역사와 민족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의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양국의 도시와 교류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베트남 전쟁 및 킬링필드 등 두 국가의 뼈아픈 현대사와 재건과정을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의 6.25 전쟁 후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추하여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미래 남북한의 통일과 화합을 위한 정치적 방안을 모색해 봄
- 사회주의 공화국인 베트남과 의원내각제인 캄보디아의 정치제도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인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이점과 장·단점을 생각해 보고 각 정치제도하의 경제추진 및 발전방향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정치제도의 발전을 생각해 봄으로써 원활하고 생산적,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우리 구의회 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됨
- 베트남, 캄보디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과 복지모델을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 해 봄으로써 그동안 간과되었던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재조명해보고, 해외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복지기관을 견학하여 대외원조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모색해 보고자 함

- 1년에 1회에 한하여 자치단체의원에게 국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국제적인 안목과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를 감지하고 세계의 이질적인 문화견문을 통해 자기계발과 창의적, 혁신적인 감각을 키우는 기회가 됨
- 지방의회의원의 높아진 창의성과 안목 및 국제적인 감각은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이는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연수목적**

-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자기계발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 수 국 : 베트남(Vietnam), 캄보디아(Cambodia)**

□ **연수기간 : 2013. 1. 28.(월) ~ 2013. 2. 2.(토) (4박6일)**

□ **연수자 명단**

- 총 19 : 구의원 14, 수행직원 5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구의장	김 근 종	의 원	이 영 실
부의를장	김 규 환	의 원	조 희 종
의회운영위원장	신 정 일	의 원	최 성 식
행정재경위원장	김 영 숙	의 원	황 판 남
복지건설위원장	이 윤 재	수행직원	박 도 수
의 원	강 대 호	수행직원	이 두 열
의 원	김 수 자	수행직원	오 성 민
의 원	서 인 서	수행직원	강 문 수
의 원	신 하 균	수행직원	김 유 순
의 원	은 승 희		

□ 연수 경과보고

- 2010. 10. 15. / 국외연수 실시여부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10. 10. 21. ~ 29. / 국외연수 희망지 및 의원일정 의견조사
- 2010. 12. 7.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 2010. 12. 22. / 방문기관 및 시설 섭외(외교통상부·시도지사협의회)
- 2011. 2. 8. / 방문기관 및 시설에 대한 의견조사 및 질의서 송부
- 2011. 2. 15. / “터키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 교육(이스탄불 문화원장)
- 2013. 1. 28 ~ 2. 2. / 공무국외연수 실시
- 2011. 3. 17. / 국외연수보고회 개최 및 홈페이지 게시

□ 연수일정

일자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1일차 (1/28) 월요일	인천 하노이	KE679	18:40 21:40	인천 국제공항 →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08:00	하롱베이로 이동
			13:00	석회동굴 및 티톱섬 전망대 방문
2일차 (1/29) 화요일	하롱베이	전용버스	16:30	베트남 전통인형극(수상인형극) 관람
			08:00	하노이로 귀환
			12:30	하노이 사회복지시설 방문(고아원) - LANG TRE SOS HANOI , 물품전달 등 - 200명
3일차 (1/30) 수요일	하롱베이 하노이 씨엠립	전용버스 VN839 전용버스	13:30	호치민박물관, 한기둥사원, 비단광장, 호치민의 집 등 견학
			15:30	호안키엠 호수, 구시가지 견학 (스트리트 카)
			17:10 18:50	하노이 국제공항 → 씨엠립 하노이 국제공항

일자	도시	교통	시간	일 정
4일차 (2/1) 목요일	씨엠립	전용버스	09:00	앙코르톰, 크레앙 바푸온 사원, 코끼리 테라스 견학
			14:00	세계문화유산 타프롬사원, 앙코르왓, 프놈바켕 견학
			18:30	압살라 민속쇼 관람
5일차 (2/2) 금요일	씨엠립	전용버스	09:00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참여(2시간) - 다일공동체 - 학용품 전달 및 식사제공 프로그램
			11:30	왓트마이 견학 (작은킬링필드, 희생자 유골 탐)
			15:00	동양 최대의 호수인 톤레삽 호수 및 수상촌 견학
			23:15	씨엠립 국제공항 출발
6일차 (1/26) 토요일			06:10	인천 국제공항 도착

제2장 방문국 현황

□ 베트남의 개요

구분	베트남 (Vietnam)
면적	330,991km ² (한반도의 1.5배)
지리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늘고 긴 S자형으로 총 길이 1,600km에 걸쳐 자리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서쪽은 남중국해와 태일랜드만에 접해 있다. 서쪽의 쓰엉산맥을 경계로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	9,152만명(세계 13위)
수도	하노이(Hanoi)
주요도시	호치민, 다낭, 후에, 호이안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기후	고온다습, 북부-아열대성 기후, 남부-열대성 기후
민족구성	베트남인(88%), 중국계(3%), 타이, 캄보디아인
종교	불교(70%), 가톨릭(10%), 기독교
GDP	1,354억\$(세계 58위)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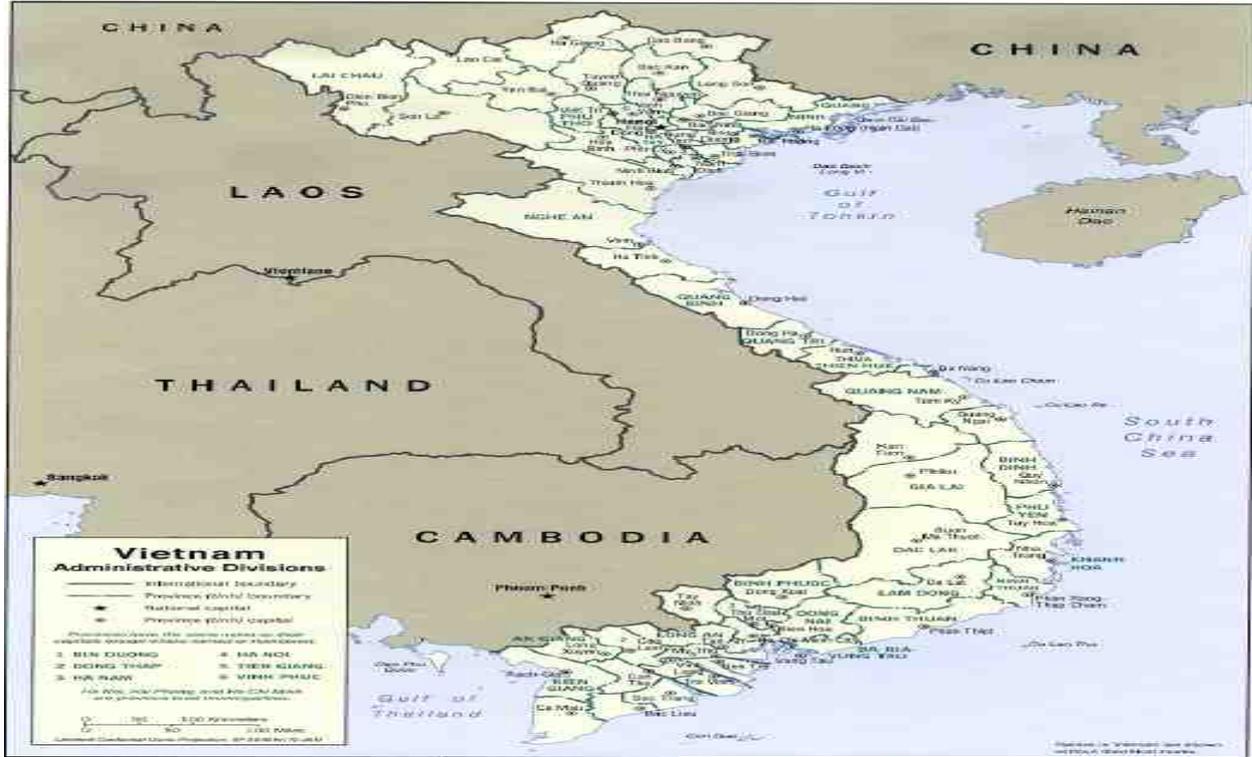
□ 캄보디아의 개요

구분	캄보디아 (Cambodia)
면적	181,035km ² (한반도의 4/5)
지리	북서쪽으로 태국, 라오스, 동쪽과 남쪽으로 베트남, 서쪽으로 캄보디아 만으로 둘러싸여 인도차이나 반도에 자리잡고 있다.
인구	1,495만명(세계 68위)
수도	프놈펜(Phnom Penh)
주요도시	프놈펜, 크라티, 밧담방
언어	크메르어, 프랑스어, 영어
기후	고온다습(연평균 : 27도)
민족구성	크메르족(90%), 베트남계(5%), 중국계(1%), 기타(4%)
종교	소승불교(90%), 기타(10%)
GDP	159억\$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 베트남 및 캄보디아지도

○ 베트남

베트남 지도



○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베트남

1. 수교일자 : 1992. 12. 22.

2. 공관장 : 하찬호 대사(2011년 4월)

3. 체결협정

- 1956년 5월 : 외교관계 수립(구월남)
- 1975년 4월 : 대사관 철수(월남패망 직전)
- 1992년 4월 : 외교관계 수립, 상주대사관 설치
- 1995년 : 세관협력협정, 해운협정 체결
- 1998년 : 외교관 및 관용여권 비자면제협정 체결
- 1977년 : 통상진흥 및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 2000년 : 교육협력협정 체결

4. 교역현황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주요교역상품
금액 (억\$)	96.5	33.3	63.2	▶ 수출 : 기계장비, 전자, 자동차 등 ▶ 수입 : 섬유·직물, 신발, 수산물 등

5. 교민현황 : 135,000명 (2013. 1월)

○ 캄보디아

1. 수교일자 : 1970. 5. 18.

2. 공 관 장 : 김한수 대사(2012년 3월)

3. 체결협정

○ 1962년 7월 : 주캄보디아 총영사관 개설(총영사관 : 이택근)

○ 1970년 5월 : 한·크메르 공식 외교관계 수립

○ 1975년 4월 : 주크메르 대사관 철수, 외교관계 중단

○ 1997년 10월: 한·캄보디아 공식 외교관계 재개

○ 2006년 7월 : 문화협정 체결

○ 2009년 6월 :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 2010년 10월: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

4. 교역현황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주요교역상품
금액 (억\$)	3.3	0.4	2.9	▶수출 : 식물류, 중고자동차, 오토바이 등 ▶수입 : 고무, 의류, 수산물 등

5. 교민현황 : 5,000여명 (2013. 1월)

제3장 연수내용

□ 주요 도시별 견문 내용

1. 하롱베이(Ha Long Bay)

-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넓이 1,500km²에 이르는 만이다. 베트남 제1의 경승지로, 바다의 구이린[桂林]이라고 불린다. 1962년 베트남의 역사·문화·과학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4년 그 아름다운 경관으로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 목록 가운데 자연공원으로 등록되었다.
- 석회암의 구릉 대지가 오랜 세월에 걸쳐 바닷물이나 비바람에 침식되어 생긴 3,000여 개나 되는 섬과 기암이 에메랄드 그린의 바다 위로 솟아 있다. 날카롭게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섬들, 환상적인 동굴이 있는 섬들이 기후나 태양 빛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과 빛깔을 미묘하게 바꾸는 광경 등이 절경을 이룬다.
- '하(Ha)'는 '내려온다', '롱(Long)'은 '용'이라는 뜻으로, '하롱'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라는 의미이다. '하롱'이라는 지명은,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를 막기 위해 하늘에서 용이 이곳으로 내려와 입에서 보석과 구슬을 내뿜자, 그 보석과 구슬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갖가지 모양의 기암(奇石)이 되어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긴 세월에 걸쳐 자연이 조각해 낸 기묘한 이 조각의 세계에는 개·귀부인·물개·사람머리·엄지손가락 등 이름이 붙어 있는 기암만도 1,000여 개나 된다. 대부분의 섬들은 그 척박한 자연환경 때문에 사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무인도이지만, 많은 종류의 포유동물과 파충류, 조류가 서식하고 다양한 식물상이 존재한다. 주로 바문섬과 캣바섬에서 열대림이 발견되며, 바다에는 1,000종 이상의 어류가 있다.

-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섬들에는 중유동(석회암동굴)이 있는 곳이 많다. 수억 년의 세월이 걸쳐 석회를 머금은 물은 천정으로부터 중유석을 흘려 내려보내고 바닥에서는 석순을 쌓아올렸다. 몇 개의 섬에서는 4500년 전의 잘 다듬어진 돌도끼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베트남 본토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돌도끼였으며, 혼가이섬에서는 호아빈 문화로 알려진 1만 년 전 인류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 이 만 안에는 20~30가구가 모여 사는 해상 마을이 5개 있다. 작은 바위에 밧줄로 묶어놓은 해상 가옥들이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의 바위 사이에 떠 있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100여 만 명에 이른다.

2. 하노이(Hanoi)

- 퉁킹 삼각주의 송꼬이강[紅河] 굴곡부 우안에 있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베트남 북부를 지배한 중국의 역대 왕조는 이곳에 도독(都督)을 두었다. 베트남의 여러 왕조와, 19세기 후반부터 인도차이나를 지배하였던 프랑스도 하노이를 수도로 하였고, 1940~1945년에 인도차이나를 점령한 일본군도 하노이를 본거지로 삼았다. 1945년 9월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베트남은 독립을 선언하고 역시 하노이를 수도로 정하였으나, 1954년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된 뒤부터는 공산베트남의 본거지가 되었다. 1976년 베트남 전역이 공산화된 후에는 통일베트남의 수도가 되었다. 정미(精米)·자동차 수리·자전거·기계·잡화 등의 공업이 성하며 베트남 경제의 축을 이룬다.
- 시가지는 왕조시대부터의 구시(舊市)와, 프랑스 식민지시대에 건설된 신시(新市)로 이루어진다. 구시는 30개의 탑문(塔門)과 성벽으로 둘러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의 유적(遺蹟)이 남아 있을 뿐이다. 신시는 작은 파리로 불릴 만큼 프랑스식 근대건축물이 있고 현재는 정부 기관·국립극장·시립극장·호텔·박물관·종합대학 등이 있으며 구시와의 사이에 호안키엠[還劍] 호수 등의 관광지가 있다. 베트남 북부의 철도·도로·수운·항공로 등이 모두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고, 행정·상공업·문화·교육 등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호안키엠(Hoan Kiem Lake)

- 하노이는 호수의 도시로 불릴 만큼 크고 작은 호수가 많이 있으며 규모는 300여 개에 달한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호수가 호안키엠 호(Ho Hoan Kiem:還劍湖)이다. 호안키엠 호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해 남쪽에는 아름다운 프랑스식(式)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외교공관이, 북쪽에는 시장이 들어서 있다.
- 호수의 길이는 700m, 너비는 200m이다. 후(後) 레왕조의 태조인 레러이 [黎利]가 이 호수에서 발견한 명검으로 명(明)나라 군사를 물리친 뒤 호수에 돌려주었다는 전설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호안키엠은 '검을 돌려준 호수'를 뜻한다.
- 호안키엠 호수에는 응옥선 사당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응옥선사당은 13세기 때 베트남을 쳐들어온 몽골군을 무찌른 베트남의 영웅 쩌 흥 다오(Tran Hung Dao)를 비롯해 문(文)·무(武)·의(醫)의 세 성인을 기리는 사당이다.

○ 하노이 옛거리(Hanoi Old Quarter)

- 쩌까인[陳]이 1225년에 세운 베트남의 왕조인 쩌왕조[陳王朝]의 수도 탕롱[昇龍:하노이] 지역에 해당한다. 하노이 중심부인 호안키엠 북쪽에 위치하며, 각종 상품을 파는 상점으로 가득 차 있다. 크게 농업·수공업·상업과 관련된 지구로 나뉘며, 작게는 상품 종류에 따라 36개의 거리로 나뉜다.
- 원래 이 곳에는 예부터 36개의 상인조직이 있어 조직별로 구역을 정해 상품을 팔았는데, 지금의 36개 거리도 여기서 유래하였다. 36개 거리가 말해 주듯 이 거리에는 없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상품이 판매되고, 특히 파는 물건의 이름을 그대로 거리 이름으로 사용해 거부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예를 들어 베트남어(語)로 거리[街]는 '포항(pho hang)'인데, 이 곳에서는 거리 이름을 포항 차오(Chao:죽), 포항 붕(Bung:국수), 포항 봉(Bong:목화), 포항 박(Bac:은), 포항 가(Ga:닭) 등으로 정하여 물건 이름을 그대로 거리 이름으로 사용하는 예가 흔하다. 일종의 전문 시장으로 수공예품·

골동품·회화작품·모조품·젓갈·비단·종이제품·신발 등 온갖 종류의 물품들이 거래되는 하노이의 대표적인 시장이다.

3. 앙코르 문화유적지

○ 앙코르와트(Angkor Wat)

- 앙코르토폰의 남쪽 약 1.5km에 있으며, 12세기 초에 건립되었다. 앙코르는 왕도(王都)를 뜻하고 와트는 사원을 뜻한다. 당시 크메르족은 왕과 유명한 왕족이 죽으면 그가 믿던 신(神)과 합일(合一)한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왕은 자기와 합일하게 될 신의 사원을 건립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적은 앙코르왕조의 전성기를 이룬 수리아바르만 2세가 바라문교(婆羅門教) 주신(主神)의 하나인 비슈누와 합일하기 위하여 건립한 바라문교 사원이다.
-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 불교도가 바라문교의 신상(神像)을 파괴하고 불상을 모시게 됨에 따라 불교사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건물·장식·부조(浮彫) 등 모든 면에서 바라문교 사원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 바깥벽은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으로 웅장한 규모이며 정면은 서쪽을 향한다. 바깥벽 안에서 육교로 너비 190m의 해자(壕字)를 건너면 3기(基)의 탑(塔)과 함께 길다란 익랑(翼廊)이 있고 여기서 돌을 깔아놓은 참배로(參拜路)를 따라 475 m쯤 가면 중앙사원에 다다른다.
- 사원의 주요 건축물은 웅대한 방추형 중앙사당탑(中央祠堂塔)과 탑의 동서남북에 십자형으로 뻗은 익랑, 그것을 둘러싼 3중의 회랑과 회랑의 네 모서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탑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성은 입체적이고 중앙은 약간 높다. 회랑의 높이는 제1회랑(215×187m)이 4m, 제2회랑(115×100m)이 12m, 제3회랑(60×60m)이 25m이다. 세계의 중심이며 신들의 자리를 뜻하는 수미산(須彌山)은 돌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쌓아놓았으며, 높이 59m의 중앙사당탑의 탑 끝에서 3중으로 둘러싼 회랑의 사각탑 끝은 선으로 연결해보면 사각추(四角錐)의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 이 사원의 뛰어난 미술적 건축양식은 인도의 영향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건물의 형태나 석조장식(石彫裝飾) 등 모든 면에서 앙코르왕조의 독자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장(全長) 760m에 이르는 제1회랑벽(回廊壁)의 부조, 제2회랑 안의 돌로 조형한 샘물[泉水], 제3회랑 내부의 화려한 십자형 주랑(柱廊)과 탑 등은 뛰어난 구조물이다. 조형에서는 하늘의 무희(舞姬) 아프사라스, 여러 개의 머리를 마치 부채처럼 치켜든 커다란 뱀, 창문·기둥의 장식 조각 등이 돋보인다. 앙코르왕조는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는 완전히 멸망함에 따라 앙코르와트도 정글 속에 묻혀 버렸다.

- 1861년 표본채집을 위해 정글에 들른 프랑스 박물학자가 이곳을 발견, 그 때부터 다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72년부터 외부인에게 폐쇄된 이후 낮이면 베트남군이, 밤에는 크메르루지의 게릴라가 번갈아 장악하면서 전화(戰禍)와 약탈로 훼손되어 수많은 불상이 조각난 채 나뒹굴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유출되어, 완전한 복구는 어려운 상태이다. 1982년 집계를 보면 앙코르와트의 중요 유물 30점 이상이 없어졌고, 전체 유적의 70%가 복원 불능의 상태로 파괴되었으며, 사원 근처 왕궁의 유물 약 1,000점이 도난·파괴되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3년 이 유적지의 복원을 위해 조사단의 파견을 캄보디아 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 앙코르툼(Angkor Thom)

- 앙코르는 왕도(王都)를, 툼은 큰[大]이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앙코르툼은 '대왕도'라는 뜻이다. 현존하는 유구(遺構)는 자야바르만 7세가 왕국의 수도로서 1200년경에 조영(造營)한 것이다. 1변 3 km인 성벽의 정사각형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중앙에는 세계의 중심으로 보이게 한 바이온묘(廟)가 높이 솟고, 그 동서남북으로 2축축대로(樞軸大路)가 도시를 4분하며 2축축이 성벽과 만나는 곳에 왕도의 문이 4개, 왕궁에서 동으로 뻗은 대로 위에 1개, 모두 5개의 문이 있다.

- 이 5개의 문은 앞면에 돌의 커다란 뱀을 겨안은 거인상(巨人像)의 열(列)을 난간으로 한 육교를 끼고 있으며, 문 자체는 거대한 4면의 얼굴을 한 탑

문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유적의 중심부에 있는 바이온묘는, 그보다 반세기 정도 앞서 세워진 앙코르와트와 함께 앙코르문화의 쌍벽을 이룬다.

앙코르 문화 유적지



□ 주요 기관 방문 내용

1. 하노이 사회복지시설 방문(LANG TRE SOS HANOI)

□ 방문일시 : 2013. 1. 30.(수) 13:30~14:30

□ 방문내용 : 숙소 → 사무실 → 내부시설

□ 방문결과

○ 우리가 이날 방문한 LANG TRE SOS HANOI는 한국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곳이지만, 베트남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주요인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유명한 복지시설이라고 한다.

○ 그래서인지 이곳의 첫인상도 여느 복지시설처럼 비좁고, 열악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깨끗하고 잘 정비된 정원같은 느낌이 들었다.

○ LANG TRE SOS HANOI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 미혼모의 아이들 같은 고아들을 돌보는 기관이다. 원래 베트남 여성들이 모성이 강하여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하나 요즘은 세대변화에 따른 의식 변화로 이 곳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 시설에 입소된 아이들은 배정된 양육교사에 의해 퇴소시까지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각은 아쉽게도 원생들 낮잠시간이라 개별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다.

○ 이 날 우리는 관계자를 따라 사무실을 방문하여 간략한 소개를 듣고 물품 전달식을 가진 후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LANG TRE SOS HANOI 방문사진



LANG TRE SOS HANOI 전경



LANG TRE SOS HANOI 방문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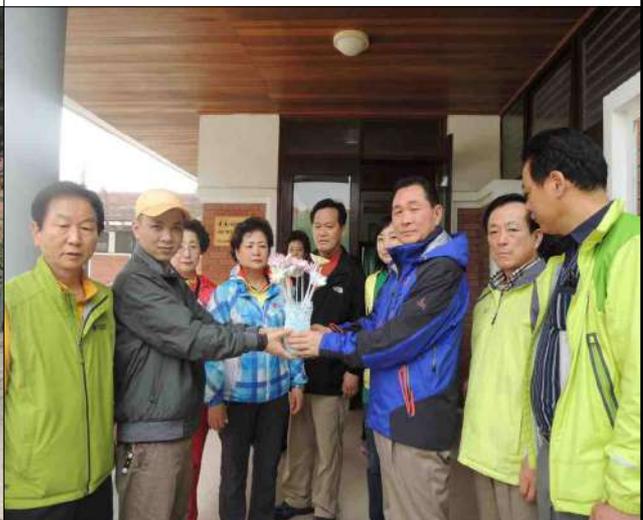
기념품 증정



현황설명 경청



내부시설 견학



답례품 전달식

2. 캄보디아 다일공동체(Hacibektas Rifat Kartal Huzur Evi)

- 방문일시 : 2013. 2. 1(금) 10:00~11:00
- 방문내용 : 시청각실 → 펌프시설 → 식당 및 배식장
- 방문결과
 - 국내에서 ‘밥퍼’ 로 잘 알려진 다일공동체의 캄보디아 씨엠립 지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연수 마지막날 오전에 방문하였다.
 - 이 곳은 2004년 3월에 최일도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열악한 여건으로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어려운 지역 아동(만 14세 결식아동 대상)을 위해 주6회(월요일~토요일) 밥과 사랑을 나누는 ‘밥퍼’ 운동과 아동을 대상으로 빵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영양개선 및 자활훈련(제빵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빵퍼’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개 한 개 시설에서 월 평균 9,000명의 결식 아동지원 및 월 평균 20,000개의 빵 지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의료 및 보건시설이 열악한 씨엠립 쭉크니어, 프놈크롬 지역민을 위한 무료병원인 다일천사클리닉을 운영하여 마을이동진료, 구충제 지원, 분유지원 등 다양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취학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KT&G 다일수상병설유치원, 샘물다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컴퓨터, 태권도, 음악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물개발 및 생수공급을 위한 우물지원사업, 수상빈민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를 지원키 위한 다일조선소 활동,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가정을 선정하여 집짓기 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개선 활동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다일공동체 활동은 이제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네팔 같은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 북미까지 나눔과 사랑의 운동이 전파되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우리는 직원의 시청각 현황설명에 이어 펌프시설, 배식장 등을 둘러본 후 식사배식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 전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의 장례행사에 따라 아쉽게도 배식활동이 금지되어서 정성스레 준비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방문을 끝마치었다.

※ 다일 공동체(多一共同體)

1997년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0년 다일복지재단을 사회복지법인 밥퍼로 바꾸었고, 다일평화인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으로는 나눔운동·천사운동·생명이음줄운동·교정복지운동을 하고 있다.

나눔운동으로 행려자·독거노인·무의탁노인·알콜중독자 등에게 매일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며, 천사운동으로 다일천사병원에서 행려자·무의탁노인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주고, 생명이음줄운동으로 베트남 등 각국에 흩어진 우리 민족을 돕고 북한동포를 위한 무료 급식을 모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산하에 다일천사병원, 다일밥퍼운동본부, 다일평화인권연구소, 다일교회, 다일공동체 본원, 수련원, 자연치유센터가 있고,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미국 등에도 설립되어 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공식 사이트

http://www.dail.org/SrcWeb/ministry/ministry_09.aspx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블로거

<http://blog.naver.com/camdail>

○ 다일공동체 방문사진



동영상 홍보자료 시청



펌프시설 시연 설명 청취



시설 현황설명 청취



배식소 견학



캄보디아 민가방문



다일공동체 방문 기념촬영

제4장 연수후기 및 소감

- 요즘은 직접 보고 듣지 않아도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심지어 현지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발달에 따른 현대 문명 이기(利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까지 현지에 갈 필요가 있을까? 4박6일간의 일정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단 하루면 다 얻을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뻘뻘한 일정과 이질적인 환경을 감수하며 그 멀리 갔을까? 나는 그 이유를 간단히 ‘체험’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즉 간단히 말하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체험을 통해 정확한 실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 막상 기대를 안고 떠나기는 하였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든 곳이었다. 우선 그곳의 날씨는 아열대성이라 한국의 겨울과는 극과 극이었다. 또한 한국만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 숙식의 어려움도 많았다. 마치 우리의 1950~1960년대를 떠올리는 시대상이었다. 아직도 전쟁의 폐허로 수도의 70~80%가 파괴된 무너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걸음마 단계의 수준일 것이리라.

- 그러나 모든 것이 낙후되고, 힘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애쓰며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문명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앞서 있겠지만, 문화는 상호 상대적인 것이다.

- 가령 베트남 시가지를 지나고 있을 때,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난잡하게 줄지어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이쯤되면 교통경찰이나 제대로 된 신호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 없었다. 그렇기에 혹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끝까지 사고 한 번 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통시스템이 있던 것이다. 상호간의 배려와 양보라는 시스템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선진화된 교통체계 시스템을 전수해 주는 것이 혼잡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만 들 정도였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할 정도가 아닌가 깊이 반성하였다.

□ 그리고 베트남의 LANG TRE SOS HANOI와 캄보디아의 다일공동체를 방문했을 당시, 매우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았을 때는 깊은 외경심마저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낙관적인 민족성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풀어나가고 있었고, 그 속에 그들의 밝은 미래가 보였다.

□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부의 미래』라는 저서를 통하면 현대 선진사회는 산업화, 정보화 사회를 뛰어넘어 우주공학, 생명공학을 향해 가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 두 국가는 산업화, 정보화는커녕 제1의 물결에 해당하는 농업사회이다. 오히려 농약과 농업기계가 비싸서 모든 농사를 인력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후진국이다.

□ 그러나 후진국이라고 뒤처지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일하고, 긍정적으로 삶에 임하는 자세는 참으로 배울만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두 나라도 한때는 우리 나라가 6.25 동란으로 어려웠을 당시 전 시물자지원국으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들이다.

□ 이 점을 반추하며 우리도 우리의 발전이 나홀로 발전이 아닌 상생과 협력이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지구촌 네트워크임을 생각하며 연수후기를 마친다.

제5장 발전을 위한 제안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여행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해외연수결과가 지방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인식되고 국외연수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고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이나 시책결정 등 행정과정에 유용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선진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가 연수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효과를 거두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우리 연수단이 이번 연수를 계기로 느낀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국외연수는 계획단계부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 국외연수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지역사회의 실정과 현안에 맞는 대안을 찾는 목적의 연수가 되도록 계획한다.
- 해당분야 관련 시민단체나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반영한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 국외연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전 정보교류를 통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2. 연수인원의 구성은 연수목적에 부합하고 연수일정을 고려한 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와의 공동구성이 필요하다.

국외연수 인원구성이 의회와 구청 관련 업무담당자,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연수를 계획한다.

국외연수 인원은 예산과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연수단을 구성하되 연수단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조직을 구성한다.

3. 국외연수 이후 해당 성과에 대한 ‘연수보고서’ 작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개한다.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정책입안이나 시책 결정 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외연수 이후 그 성과와 우수사례를 언론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한다.